



### #끓어오른 맥을 다시 이은 뜻은?

운와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도려내는 듯 매서웠다. 이런 강추위와는 상관없이 '자비도량참법' 기도 회향식이 진행되고 있는 설법전은 참회하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차다. 오랜 세월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녹이겠다는 일념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는 설법전을 뜨겁게 달구고도 남을 정도였다.

봉선사에서오는 오랫동안 맥이 끊어진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1월 3일 입재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봉행했다. 1월 31일 회향법회가 열렸다.

<자비도량참법>은 일종의 참회문 총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경전에 들어있는 참회의 방법과 내용들을 일정한 체계로 엮어 낸 책이다. <자비도량참법>을 보면 서두에 참회문을 편찬하게 된 동기가 있다. 중국 양무제는 황후 차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렁이가 나타나 자신이 죽은 황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생전에 궁녀들을 구박하고 질투심으로 인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과보가 너무나 커서 구렁이의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부디 저를 위해 공덕을 닦아 주세요."

양무제는 당대의 고승들을 초대해 황후 차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묘책을 물었더니, 참법을 닦아 부처님을 봉행할 것을 권하였다.

<자비도량참법>은 '인과응보를 믿지 않고 자신이 구제받을지를 의심하는 것은 수행과 불법을 닦는 데 장애가 되므로 끊어야 한다. 또 죄를 없애는 참회(懺悔)와 반드시 불도를 깨우치겠다는 발보리심을 해야 하며 발원의 결과를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 #묵은 때 먼저 녹여야 행복이 온다

주지 인묵 스님은 "산년을 맞이하여 묵은 때를 녹이는 참회부터 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생각하기에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봉행하게 되었다"고 법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회는 기도에 들어가기에 앞서 꽃비 의식으로 시작 됐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였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듯이, 이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 역시 참회기도를 함으로써 새사람이 된다는 의미와 경건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종이로 만든 연꽃잎을 뿌리는 것이다.

"자신과 타인의 원한, 타인과 타인간의 원한이 없어야 지옥이 없어집니다. 기도를 하면서 서로가 모두 원한을 풀어 상념과 어리석음을 생겨나지 않게 하고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해야 합니다."

직접 정과 복을 치면서 참회기도를 진행하는 인묵 스님은 300여명이나 되는 동참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자비도량참법 기도 회향은 조상천도재로 이어졌다.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수행하면 죄업을 녹일 수 있으며, 내 식이 맑아짐으로 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

### #자꾸만 흐르는 눈물...환희와 가피

몇몇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어떤 노보살님은 <자비도량참법>을 독송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업이 떠올라 자꾸만 눈물이 흐른다고 하였다. 또 어떤 보살은 참회기도에 동참한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올해 1년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으면서 환하게 웃었다. 수억 겁을 내려오면서 입으로 묵은 마음으로 지은 죄를 이 한 번의 기도로 소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생에 지은 죄 일부는 희석되고 소멸되었다고 생각하면 기쁨의 눈물이 넘쳐흐를 것도 같다.

봉선사는 앞으로도 일 년에 두 번씩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봉행할 계획이다. 자칫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것이 참회기도인데, 북과 징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법당에 알리게 깔리고 분홍 꽃잎이 흩날리는 가 하면 나비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비라춤이 있어 마치 축제와도 같았다.

글=문운정 논설위원 사진=박재완 기자

### 봉선사 '자비도량참법' 법회

## 참회로 깨끗해진 마음엔 生死도 없어라



◀자신이 지은 죄업이 떠올랐는지 자비도량참법 기도 중 눈물을 흘리는 불자들이 눈에 띄었다.



▶천도제가 끝난 뒤 주지 인묵 스님과 신도들이 영가위패를 태우고 있다.

살물크기(소) 3.5 × 5cm  
(중) 5 × 7cm

관공경 천수경 비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동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동

**복상불소영  
장량장천  
식식사용도**

(불사인연 공역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공의 인연공역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 35 × 50cm  
(대) 42 × 65cm  
메틀족자  
60 × 20cm

**오마니반  
메틀족자**  
60 × 20cm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전주  
크기: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  
과 '복받은 마음'을 이루어 주며 일에서 행  
이 행하여 나와 예쁨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  
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복막외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료기 **금강약들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들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작용  
하고 편안하게 알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  
결림 고열암,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신분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신체현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온열복대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선보형 기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험출원

시야청 의류기기  
05-0626로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  
를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썩음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품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홍  
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  
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  
들 온열복대**는 속품(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  
침"**이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홍터 걱정 없이** 자유롭다. **차가운배, 허리  
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의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임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일금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